



에덴뉴스

2018년 7월
통합 12-77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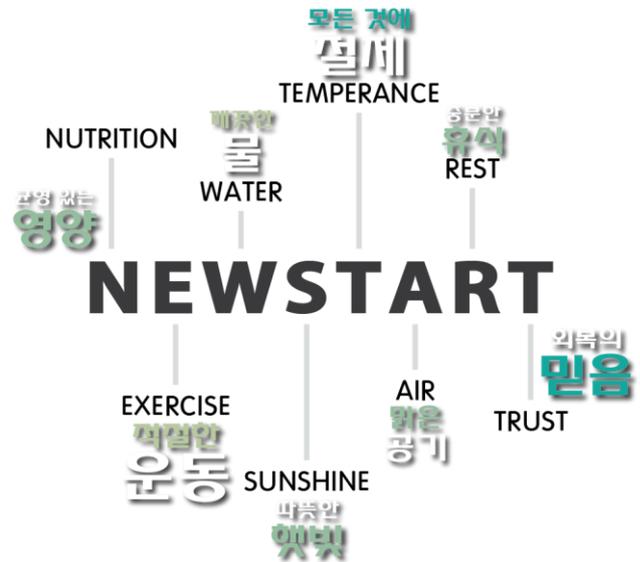
06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SPECIAL 편집장 특집

새로 시작하는 에덴, 다시 돌아보는 에덴

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생활습관개선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완치를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덟 가지의 생활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의 시작
NEW START
에덴요양병원



그 다섯째가 절제입니다.

-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성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1. 음식을 절제합니다. 적당히 맛있게 먹습니다. 과식은 건강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2. 자신의 체력에 맞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매일 피곤이 쌓이도록 지나치게 하는 운동보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3.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매사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활해야 하지만 타인이 지나치게 불편을 느끼도록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절제하면 더 유익이 됩니다.



NEWS 에덴의 소식

필리핀 의료선교봉사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선교봉사단(단장 송정옥)이 필리핀 만다나오섬 카가안데오로 지역으로 파송되어 일주일 동안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이 활동한 따글리마오, 딱방이, 키나웨 세 곳에서 654명이 무료진료를 받았고, 400여 명의 어린이가 성경학교에 참여하였다.



한편 봉사기간동안 현지 연합회와 교회는 통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마치는 날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에덴요양병원은 직원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을 매년 파견할 계획이다.

칸타모레 합창단 공연

6월 22일, 칸타모레 합창단을 초청하여 은혜로운 찬양예배를 드렸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은 잘 준비된 합창단의 찬양의 감화가 가슴으로 전달되는 확실한 증거였다. 칸타모레 합창단은 원주 문막 횡성지역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합창단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다.



후면주차장

병원 후면 에덴정원 진입로를 새로운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용을 시작했다. 공터 땅을 다져 만든 주차장이라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으로써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동안 현관 앞 주차장을 이용하던 직원들의 차량을 후면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환우들이 주차공간을 여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환우들의 주차난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유경혜(진료지원과) 6월 30일 부

♥ 축하합니다 ♥

최철규(홍보기획과), 박은진(간호부)
5월 10일 득남



행복칼럼[14] 원목실장 류태희

“복된 장마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롬 8:35~39)

1990년경 서울 금호동교회 시무 할 때였다. 금호동 지역은 지금은 잘 개발이 되어 고층아파트와 좋은 건물들이 서 있지만, 30여년 전 그때만 해도 낙후되어서 재개발되어야 할 달동네로 화장실들은 재래식이 많아 정확조 차량들이 와서 골목길 따라 길게 호스로 배관들을 연결하여 인분을 퍼내었다.

어느 안식일(토요일) 아침에 나가보니 교회 앞마당에 정확조 차량이 주차해 놓고 교회 위쪽 골목들 사이사이로 길게 배관을 연결하여 교회 윗동네 집집의 인분을 퍼내고 있었다. 이제 곧 안식일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교회 앞마당에 주차해 놓은 정확조 차량에서 풍기는 인분(똥)냄새는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코를 막아 쥐게 만들었다.

교회로 올라오는 외부 계단(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나열된 정확조 배관들이 터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확 차량 기사와 일하시는 책임자에게 예배 드리는 안식일(토요일)에는 오시지 말도록 정중히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말하기를 배관이 터지는 일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고, 이 지역, 이 골목은 토요일 오전에 배정되어 있어 이 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냄새를 참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 교회 현관 앞 붉은 벽돌 계단을 타고 교회 앞마당으로 인분들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인부들은 당황하여 골목 위에서부터 물을 퍼붓고 비로 쓸고 난리를 치르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확조 차량과 교회 윗동네를 연결한 배관의 연결 부분이 파열되어 온 골목과 교회 앞 계단이 인분(똥)천지가 되고 만 것이다.

더욱이 교회 앞 계단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 벽돌 사이사이로 똥물이 스며들어 아무리 물을 뿌리고 비로 쓸고 해도 도저히 그 악취를 제거할 수가 없었다. 금호동교회 이름은 좋으나 똥 냄새 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당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작업하다가 잘못 되었으니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며 냄새를 제거하도록 요구했지만 그 냄새는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다음날 일요일부터 매일마다 수돗물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며 냄새제거 작업에 몰두했다. 목요일까지 계속된 작업에도 벽돌 사이 틈새와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그 역겨운 냄새는 그리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 냄새를 어찌할꼬?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날 금요일 아침이 밝아왔다. 냄새제거 작업을 하러 교회 앞마당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역겨운 인분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여러 날 동안 물을 뿌리고, 비로 쓸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가시지 않았던 그 골치 아픈 냄새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단 하루만에 사라졌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 새벽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3시간 정도 세차게 내린 일이 생각났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 날이 걸려도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소낙비에 단번에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마음 편히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어떤 교회(성도) 또는 우리 자신에게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역겨운 냄새로 이웃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성령의 소낙비를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자. 그 약속된 소낙비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마다 충만히 적시어서 역겨운 세상의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냄새)를 발산하는 재림성도들이 되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스 10:1)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후 2:14~16)

- ★감동나누기 : 글을 읽고 느낀 소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에덴요양병원 원목실(031-590-7591) 또는 이메일 (eckclth@hanmail.net)



TODAY 따뜻한 하루

최고의 만족

조성희

갑상선수술을 2015년에 했다. 1년 반이 지난 후에 정기적인 CT검사결과, 척추에서 골육종 형질세포종 척추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다. 담당의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신경판을 건드려 하반신마비 위험이 염려되는 경우라며 지금 발견된 것이 천만다행이라 말했다.

2017년 어느 날,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만난 환자를 통해 에덴을 소개받았다. 에덴에서 입원하여 1년 정도 생활하며 건강이 많이 향상된 그 분은 대뜸 에덴요양병원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2월 8일 입원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앉아있지도 못하고 생활했기에 입원하던 날 남편 차에 기대어 누워서 에덴을 찾았다. 입원 당시만 해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에덴에 입원할 당시 당뇨와 고지혈로 약을 먹어야 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참 힘든 상황이었으나 에덴의 치료원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에덴의 치료원리대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생활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운동도 병원 주변만 겨우 돌다가 조금씩 욕심을 내어 산책로 0.5km를 시작으로 조금씩 향상을 거듭하며 거리를 늘려서 걷다 보니 2.4km 지점까지 걷는 것이 가능해졌다. 끊임없이 향상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행복은 더 증가했다.

입원 당시 병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고주파치료와 자닥신, 압노바 등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제공되는 자연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나에게 이 곳 음식이 너무 맛있는 별미처럼 맛있었다. 매일 매일이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에덴에서 생활하던 중 정규검사를 받았다. 담당의 사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너무 좋아졌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굉장한 개선효과였고 놀라운 변화였다. 너무 좋았다.

이제는 에덴생활이 많이 익숙해졌고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이 곳 생활은 집보다 편하고 집에 가면 에덴에 빨리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

이젠 나도 에덴의 홍보대사처럼 에덴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다닌다. 내가 체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에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진다.

TODAY 따뜻한 하루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터득한 사람뿐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국내 최고령 여의사 한원주 선생님,
이제는 자기 몸을 추스르는 것도 힘에 부칠 연세이건만
한원주 선생님은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원주 선생님의 부친, 고(故) 한규상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항일투사로 활약하고,
해방 이후에는 전국에 번진 콜레라 치료를 위해
무료로 의료봉사에 온 힘을 기울이며
치열한 삶을 살다 간 의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차별 받던 여성의 몸으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내과전문사격을 따고,
1982년, 국내 최초로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환경까지 함께 치료하는 '전인치유소'를 열어
가난한 환자들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며
온전한 자립을 돕는 무료의료봉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매그너스요양병원에서
가족들도 힘겨워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 받는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며,
주말이면 외국인 무료진료소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주기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세는 올해 93세입니다.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시력도 점차 약해지지만
남은 삶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경험과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로만으로도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의(大醫)는 역시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토달힐링을 하는 그 상태가
대의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 의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자두



자두는 핵과류 그리고 앵두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의
작은 묘목인 자두나무의 열매로 생김새는 복숭아와
비슷하고 크기는 약간 작고 신맛이 나는 과일이다.
자주색 복숭아라 하는 의미에서 '자도'라고 부르다가
오늘날의 자두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0여 종이 있
으나 식용가치가 있는 종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자두에는 철과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해
고혈압 등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풍부
한 철은 빈혈예방에 효과적이고, 칼륨 성분은 뼈를
튼튼히 하는 효능이 있다.

자두의 카로티노이드성분은 눈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를 비롯한 비타민군 또한 풍부해 피로회복
에 효과적이고, 감기예방,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
이 된다.



FIGHTING 화이팅 릴레이

원무과 박효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에덴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암’이라는 존재 때문에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해봅시다!
 위에 성경구절처럼 받은 것으로 믿읍시다!
 하루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봅시다!
 이미 여러분은 치유 받은 존재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암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에덴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피주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저의 병이 곧 낫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과 어둠에 싸여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예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둡고 험한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해도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에 친히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제 숨결이 부드럽게 하시고 온 몸에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옆의 환우들과 문병 온 이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박효의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간호부 김해영님’입니다.

칭찬합시다~

‘이우림’샘을 칭찬합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매번 먼저 웃어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112호 김단정 -

‘김난경’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우리를 보시면 사탕도 주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를 잘 챙겨주세요. - 남효린 -

202호 ‘원명순’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웃으시는 모습이 귀여우세요. - 남효린 -

‘남태희’님을 칭찬합니다.
 맨날 환자분들을 치료해주고 항상 즐겁게 해주요. - 남효린 -

‘안재현’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씨로 환우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3층 병동 이영희 -

수기공모

환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 에덴에서 경험한 행복이야기
- 가족, 환우를 향한 사랑의 편지
- 감동을 주는 병실 에피소드
- 그 외 자작시나 수필 등

문의 홍보기획실 (☎610)

지난 호 틀린그림찾기 정답



